

나무속에 담긴 내 꿈들아~! 무럭무럭 자라렴~



마음까지 상쾌한 산들바람 같았던 시원한 하루였습니다. 2007년 3월 30일, 경기도 포천 금주산에서 과천초등학교 · 수락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 한그루녹색회 기업회원 메리어트 체인호텔 임직원들은 나무를 심으며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넓은 산에 6년생 잣나무를 심고, 소망을 담은 이름표를 나무에 걸면서,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꿈이 소중하게 영글어 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전나무에 푸른 꿈 주렁주렁



새 생명이 피어나는 봄이다.

이런 봄에 우리학교 푸른숲선도원은 제62회 식목일 기념 나무 심기 행사를 가기로 하였다. 매년 식목일이 공휴일이어서 시청에서 주관하는 나무 심기 행사를 한 후,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하였으나, 작년에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참가하지 않고 교실에서 간단한 행사를 하였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해 못심은 나무까지 두배로 심겠다는 각오로 3월 30일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하였다. 전날 밤 비가 주룩주룩 내리어서 내일까지 비가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으로 맘을 졸였는데 다행히 비가 오지 않아 기쁜 마음으로 나무를 심으러 갔다.

도착하여 보니 우리가 나무를 심을 곳은 포천 금주산이었다. 그 곳은 리기다 소나무들이 병들어 잘라내고 다시 나무들을 심을 예정인 곳이었는데, 우리가 산을 가꾸게 되어서 너무 기뻐다. 하지만 기쁨 마음도 잠시뿐, 곧이어 땀을 흘리며 나무를 심는 시간이 되었다.

경계선을 따라 괭이로 구덩이를 팠다. 땅을 파니 밀둥이 잘린 나무들의 뿌리가 나왔는데 전부 잘라 내야 해서 힘들었지만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나무를 심자' 는 생각이 떠올라 저절로 힘이 나서 재미있게 나무를 심을 수 있었다. 산등성으로 하얀 줄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 학교 교장실에 걸린 옛 사진이 떠올랐다. 옛 어른들께서 줄 따라 모내기를 하는 풍경이었다.

한참을 심다보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나무는 속에 부드러운 속껍을 집어넣고 밖에는 겉껍을 덮은 후 거름으로 낙엽을 다시 덮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10그루를 다 심고 두 그루에다 이름표를 달았다. '전나무야! 지금은 6살, 나보다 훨씬 작지만 10년이 지나면 전봇대처럼 커서 나를 지켜보겠지. 나 역시 너처럼 커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거야! 우리 모두 무럭무럭 자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

올봄에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예정이다. 내년엔 중학생이 되어 오늘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지 다시 한번 와 보고 싶다. 다시 만나면 굵어진 줄기만큼 내 이름표를 느슨하게 풀어주어야겠다. <글 · 김준호 / 과천초 푸른숲선도원>

오늘 심은 나무가 10년 후엔 울창한 숲이 되기를



"따르르릉, 따르르릉"

오늘도 알람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다. 활짝 기지개를 켜고 창밖을 내다보니. 어제 비가 온 탓인지, 하늘이 참 청명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달리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학교에 조금 더 일찍 가야하고,

게다가 가방도 가벼웠다. 마음속에 설렘을 가득 안고 나무를 심는 곳으로 출발했다. 버스 안에서는 오늘 무슨 나무를 심을까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짝 메웠다. 잣나무? 소나무?

난 배나무나 사과나무 같은 과일나무를 심고 싶었다. 과일나무를 심으면 가을에 맛있는 과일이 열려서 따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시가 다 되어 나무 심는 장소에 도착했다.

그런데 나무 심는 장소가 너무나 이상했다. 나무가 한그루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허허벌판을 보고 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반드시 나무를 10그루 이상 심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이 벌판을 나무가 울창한 숲으로 되게 하겠다고.

잠시 뒤, 우리는 나무 심는 법을 배웠다. 설명을 다 듣고, 4인 1조로 나무를 심었다. 학생3명에 선생님 한 분이셨는데, 우리조 선생님은 스웨덴에서 오신 메리엇 체인호텔 임직원 중 한분이셨다. 외국인이라서 말이 잘 통하진 않았지만 짧은 영어로 몇 마디 할 수 있어 무척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다. 우리는 아주 많이 나무를 심었다. 내 생각에 족히 15그루는 될 것 같다.

열심히 나무를 심은 후 점심을 먹었다. 꿀맛 같은 점심!! 역시 일을 하고 먹는 밥이 최고다.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었다. 밥 먹고 더 나무를 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야 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정말 보람 있는 시간들이었다. 차 안에서, 난 저 산 어딘가에 있을 내 나무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세차게 손을 흔들었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나무도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을 것이다. 내 손안에 쥐 자그마한 전나무 묘목을 바라보며 난 다시금 마음이 설레었다. 내일은 비가 내린다고 한다. 내일 오는 비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세찬 비가 아니라, 오늘 심은 나무들의 발을 살포시 적셔주는 고맙고 예쁜 비였으면 좋겠다.

〈글 · 김주은 / 과천초 푸른숲선도원〉